

식약청, 포장재 국제심포지엄 7월8일 개최

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김정숙)이 7월8일 <2005년 용기포장 국제심포지엄>을 개최한다.

랩 등 식품용 용기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때여서 포장재 국제심포지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2003년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2005년 심포지엄에서는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의 식품용 포장재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소개하고,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제 통상마찰 방지와 국민건강 도모를 꾀한다.

심포지엄에는 6월24일 강릉대 <식품용기포장재의 허용물질목록 검토를 위한 세미나>를 주최한 이근택 교수도 참여한다.

2005년 용기포장 국제심포지엄 일정

구 분	시 간	발표주제	발표자	비 고
Session 1	13:50-14:20	일본 PVC 포장재질 관리	Masakazu Isurugi	일본 PVC 협회
	14:20-14:50	중국 신소재 포장재질 기준	Fan Yongxiang	중국 국가위생부
	14:50-15:20	용기포장재 허용물질목록 제도	이근택	강릉대학교
	15:20-15:40	휴 식		
Session 2	15:40-16:10	미국, 유럽의 포장재 첨가물질	J. B. Dubeck	Keller & Heckman
	16:10-16:40	중국 용기포장 관리현황	Xia Xiangdong	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
	16:40-17:10	한국 포장재 관리현황	이광호	식약청
	17:10-17:40	종합토론		

자료) 식약청

한편,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6년간의 연구결실을 담은 <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>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.

보고서에는 다이옥신(Dioxin), DEHA(Diethylhexyl Adipate), DEHP(Diethylhexyl Phthalate) 등에 대한 연구 내용과 향후 관리전략이 소개된다. <김건우 기자>

<화학저널 2005/06/29>